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1(土)	22(日)
비온뒤 맑 22 / 27℃	구름 많음 22 / 29℃

- News**
- 전남대생 '국토대장정' ③
  - 경유값 8 달 35원 인상 ④
  - 최경주 '탱크샷' 폭발 ⑮

- Jeollado**
- 그 사람-정해숙 前위원장 ⑦



- Entertainment**
- TV토크쇼 '뽕뽕' ⑧
  - 영화 해리포터 열광 ⑨

- Wellbeing**
- 식품 탐구-레몬 ⑬



유형별 대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buniv.ac.kr

세계로 뚫어가는 대학  
진남과학대  
http://www.jinam.ac.kr

## 한국인 20여명 아프간서 피랍

분당 샘물교회 신도 등... 탈레반 무장세력에 억류

아프가니스탄에서 20여명의 한국인이 현지 무장세력에 납치됐다. 조희용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0일 "아프간을 여행중인 우리 국민 20여명이 19일 오후 카불 인근 남측 지역에서 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외교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정부합동 국외테러본부를 설치하고 현지에는 현지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치된 20여 명의 한국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샘물교회 소속 신도 20명과 이들을 안내한 현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회 배형규(44) 목사와 신도 등 20명

은 지난 13일 현지에서의 봉사 등을 위해 아프간에 입국했으며 칸다하르에 있는 힐라병원과 은혜샘유치원에서 협력봉사활동을 벌인 뒤 23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19일 오후부터 교회측과 연락이 두절됐다. 이들은 아프간 수도인 카불에서 칸다하르를 향해 버스로 이동중 가즈니 주(州) 카라바그 지역에서 현지 무장세력인 탈레반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탈레반 카리 유수프 아마디 대변인은 이날 자신들이 한국인 18명을 억류하고 있고 피랍자들은 안전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탈레반 지도부가 이들의 신병처리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랍자 숫자와 관련, 탈레반 대변인이 18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단 초기단계에서 23명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일부 다른 보도가 있어 최종 확인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추억의 기찻길 해바라기 활짝

무안 동탄면 사천리~몽강리간 철도 폐선부지 2km가 최근 해바라기꽃이 만발한 자연공원으로 거듭나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北 핵불능화 이행 약속”

차기 6자회담 9월초 개최

오는 9월 초 차기 북핵 6자회담이 열리고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베이징(北京)에서 6자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된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우대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은 20일 사흘간 진행된 6자 수석대표 회담을 결산하는 언론 발표문

(프레스 코뮤니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 부부장은 북한이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와 핵시설 불능화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4개항으로 구성된 발표문에 따르면 6자는 이 외에도 다음달 중 비핵화, 에너지·경제지원, 동북아평화안보체제,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등 5개 실무그룹 회의를 모두 개최하기

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 초 열릴 6차 2단계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은 실무그룹 회의의 결과를 보고받고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문은 명시했다. 이번 발표문에는 불능화 단계 이행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다음달 5개 실무그룹 회의에서 불능화 및 신고 단계의 이행 로드맵을 집중 협의한 뒤 9월 초 6자회담 본회의에서 불능화 단계의 이행 시한 및 세부 로드맵 도출을 시도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 광양에 후판(厚板)공장 연산 200만t 규모 설립

포스코, 1조7천억원 투입 착공  
조선·중공업 소재 수급난 완화

연산 200만t 규모의 후판(厚板)공장이 광양에 세워진다. 포스코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조선, 중공업 경기 활성화로 급증하고 있는 국내 후판수요에 대응하고 2009년 광양4고로 능력 확장공사 이후 늘어나는 쇳물을 활용하기 위해 후판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공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1 미니 밀공장 인근 여유부지에 건설되며 2008년 8월 착공해 2010년 7월 준공할 계획이다. 후판공장 규모는 부지 330만5천 800㎡에 생산라인 길이만 1.6km에 달하는 초대형이다. 포스코는 이와함께 신설되는 후판공장에 필요한 슬래브(Slab)를 공급하기 위해 광양제철소에 200만t 규모의 제강공장을 후판공장보다 한달 앞서 건설할 계획이다.

투자비는 후판공장 건설에 8천550억원을 비롯해 제강공장 등에 총 1조7천 910억원이 투입된다. 후판 공장의 광양 건설로 조선과 자동차 관련 공장 등 전후방 연관 산업 유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 후판 공장이

본격 가동될 경우 광양컨테이너항만의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국내 후판수요는 지난해 910만t에서 2010년 1천300만t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철강사들이 생산설비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에도 공급을 초과해 500만t 이상 수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010년 광양 후판공장이 준공되면 포스코의 후판생산량은 총 700만t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선, 중공업 등 국내 후판 수요산업의 소재 수급난이 완화되고 일본, 중국 등지에서 연간 350만t씩 수입되는 후판의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후판공장 신설지로 광양을 선택한 이유는 여유 공장부지가 많은데다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기존 조선업체들은 물론 해남 화원 등 남해안 일대에 신규 조선단지 건설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양=김종호기자 chkim@kwangju.co.kr

▲후판=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강판으로 주로 배를 만드는 조선용과 교량, 산업기계, 보일러 압력용기 재료 등으로 많이 사용된다.

## 코스피 2,000 눈앞

코스피지수가 미국 다우존스지수의 1만4,000선 돌파에 힘입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2,000선을 눈앞에 뒀다. 코스피지수는 20일 전날보다 45.64포인트(2.36%) 급등한 1,983.54로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기준으로 4일(거래일 기준)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6.01포인트(0.73%) 상승한 825.33로 마감했다. 이날 국내증시 급등은 미국 다우존스 산

업평균지수가 전날에 비해 82.19포인트(0.59%) 상승한 14,000.41에 거래를 마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기 때문이다. 기관은 닷새째 매수 우위를 이어가며 2천 47억원의 순매수해 지수상승을 주도했다. 대부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전기전자(4.23%), 운수창고(3.79%), 건설업(3.16%) 등이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